2021년 3월 14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11편 7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오리로다
> (시편 11편 7절)

◎ 찬 송 / 310장(통410) **아 하나님의 은혜로**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다니엘 2장 24~35절(구약p.1233)

> **24.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라 하니**
> **25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 **26.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 **27.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 **28.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 **29.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 **30.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 주려 하심이니이다**
> **31.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 **32.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 **33.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 **34.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 **35. 그 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 말씀선포 / 말씀을 전하는 자의 바른 자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께서 친히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셨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하신 바로 복음증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성도는 우리의 삶과 또한 말로 증거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때로 실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족하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착각하여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종으로 바른 청지기적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가져야할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1. 말씀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증언해야 합니다.

- 다니엘이 왕의 명령에 따라 모든 지혜 자를 죽이려는 아리옥에게 가서 자신이 왕의 꿈과 해몽을 고하겠다고 알립니다. 보고를 받은 느부갓네살왕은 다니엘을 불러 능히 꿈과 해석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지혜 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는 알 수 없으나 자신이 믿는 여호와만이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 27~28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9~30절에서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 주려 하심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이 왕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계시하셨음을 고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왕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역사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왕의 운명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계시의 주체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말함으로 느부갓네살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교훈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당시 상황에서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느부갓네살왕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강조해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 나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임을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 다니엘은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왕의 꿈과 해석을 가르쳐 주신 것은 자신의 지혜가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라는 사명을 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본문 29~30절에서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 주려 하심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신의 계시를 받아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일을 전하는 상황에서는 때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기가 쉽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으므로 다니엘은 그 상황을 이용해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를 높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다니엘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1~23절을 보면, “헤롯이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얼마든지 높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와 권능 그리고 지혜와 지식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능력으로 높임 받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생각해보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너무나 약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롭고 지식이 많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지혜로 문화와 과학,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발견하고 발명하여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지적인 존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3.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가감 없이 오직 말씀만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왕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자신에게 보이신 장면을 그대로 고합니다. 본문 31~35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 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지금 느부갓네살왕이 꿈의 내용을 망각했지만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바를 그대로 전하자 왕은 꿈이 다시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을 말할 때 더하지도 빼지도 않았음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렇듯 하나님이 보이시거나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과 사상을 더하거나 자기 맘에 들지 않는다고 빼거나 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입에 넣어 주신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요한에게 계시하시면서 그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19절에서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요 예수를 증거 하는 사명을 맡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거나 가르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로 기록된 말씀이 훼손되거나 더하여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내 생각과 내 주관, 세상의 상황과 논리를 가지고 이해하려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지혜로 깨닫고 알아가야 하며, 내가 받는 말씀은 그대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 은혜 그대로 증거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다가 타락하여 이단으로 빠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뜻을 가감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겸손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더욱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받은 말씀 체험되고 경험되어진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증거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04장(통404)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폐 회 / 주기도문